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0년 6월 뉴스레터 vol. 32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



이사의 추억

24%의 기적

기억과 사진

채우고 비우고

효도하는 법

장례 후기

죽은 자의 집 청소 외

메멘토모리

상조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숫자로 보는 채비

문화 공간 채비 공사 완료

조합 소식

이사의 추억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에서 일을 한지 만 7년이 돼 간다. 2012년 9월부터 일을 했으니 말이다. 조합에는 입사 바로 전 해에 가입했다. 그때만 해도 이곳에서 상근자로, 이토록 오래 일할지는 꿈에도 몰랐다. 사람 일이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처음 출근한 사무실 상황은 황당했다. 종로구 서촌에 있는 모 시민단체가 내준 작은 공간(두 평 남짓)을 서울조합이 쓰고 있었는데, 비좁은 것은 둘째 치고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었다.

서울조합 사무실 문을 열자 ‘끼익’ 소리와 함께 쿵쾅한 곰팡이 냄새가 엄습했다. 실무자를 구하지 못해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것이다. 한 시간여 청소를 한 후 자리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는데 먹통이었다. 전화요금 연체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였다. 정수기 물은 언제 갈았는지, 마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연합회 사무실은 서울조합에서 멀지 않은 곳의 옥탑공간이었다. 작은 방은 대표의 숙소로, 거실은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었다. 상근자는 사무총괄 상무와 장례지도사 둘이었다. 낡은 빌라 3층의 계단을 다 오르고 나면 좁은 철제 계단이 이어졌다. 가파른 계단을 위태롭게 오르내렸던 기억이 난다.

나는 출근 하루 만에 못 다니겠다고 통보했다. 대표가 이유를 물었다. 나는 “우리 조합은 장례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사무실을 보고 나니 도저히 신뢰가 가질 않는다, 내가 납득할 수 없는데 누구를 가입하라고 권유하겠는가” 라고 답했다. 대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고, 나는 당장 사무실을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사직터널 위 ‘사회과학자료원’ 건물 5층으로 옮겼다. 마을운동단체와 함께 쓰는 사무실이었다. 오래된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경복궁역에서 750미터 비탈길을 걸어올라, 다시 5층까지 올라 오면 숨이 턱까지 차 올랐다. 그래도 조합원 교육을 위한 강당이 있었고 매일 메뉴가 바뀌는 맛 좋은 구내식당도 있었으며, 널찍한 공간에 햇빛이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했다. 상무는 없는 돈에 무리했다며 걱정이 많았지만 다른 분들은 ‘장족의 발전’이라고 기뻐했다.

때마침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정국과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바람을 탔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홍보를 시작하자 조합원이 급증했다. 2013년 한해만 1천여 명 가까운 조합원이 가입했다. 애석하게도 이 기록은 아직 깨지 못하고 있다. 직원도 늘리고, 교육과 모임을 활성화하고, 홍보물도 정비했다. 장례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대로만 가면 머지않아 크게 성공할 것 같았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 했던가. 그동안 어렵사리 명맥을 유지해 오던 일부 지역조합들이 ‘자원의 분배’와 ‘주도권’ 문제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여기서 구구한 얘기를 다 적고 싶진 않다. 다만 한 가지, 결국 입장과 기대의 차이였다고 말하고 싶다. 내홍과 갈등은 극심했고 이 여파가 3년 가까이 이어졌다.

초기 갈등을 겨우 수습하고, 조합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평지’로 내려가기로 했다. 다행스럽게 조합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했다. 우리 조합을 믿고 지켜준 조합원에게 새삼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한 경복궁역 인근 아담한 건물 2층으로 이사했다. 비록 임대이긴 했어도 우리 조합 최초의 32평 단독 사무실이었다.

무너진 리더십을 새로 세우고 상처를 추스르며 다시 신발끈을 조였다. 이후 6년여 동안 크고 작은 위기가 닥쳐왔다. 숨 돌릴 틈조차 없이 위태로운 상황을 견디고 문제를 해결했다. 위기의 순간마다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 임원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상근자들, 바위처럼 굳건하게 우리 조합을 믿어준 조합원을 보면서 나는 여러 차례 감탄하고 감동했다. 그 어려운 시절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까마득하다. 이 시절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안팎의 위기가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문제해결 능력을 제고시켰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위기와 불안이 꼭 나쁜 것이라 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거듭났고, 아마추어를 넘어 ‘프로(?)’로 진화해 갔다.

그 정들었던 서촌 사무실을 7년여 만에 떠났다. 교통 편리하고 풍광 수려한 남산자락에 번듯한 사무실과 꿈에 그리던 ‘채비_문화공간’ (52평)을 마련했다. 이제 ‘추모형 작은장례(채비장례)’, 다양한 조합원 모임과 행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멋진 공간을 디자인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목표가 분명하고 방향이 선명한 이동이니만큼 기쁘고 행복하다. 여기서 펼쳐질 미래가 무척 궁금하다. 우리가 그리던 미래에 한층 다가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충무로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2호점, 3호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과 함께 계속 성장하고 있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기억과 사진



혈혈단신 월남해서 전쟁을 치르고 장교로 예편한 아버지는 내 눈에 현실부적응자, 경제적 무능력자, 화 잘 내는 사람, 어머니를 고생시키고 우리 가정을 불안하게 만든 사람이었다. 옛날 어른들이 다 그렇기도 했지만 아버지와 살갑게 무슨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 그렇게 오십여 년이 흘렀고 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셨다. 혼자 남으신 아버지는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직장에 바빴던 나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다 승승장구하던 내 인생 행로가 어느 날부터 꺾이게 되니 급전직하 실직하고 말았다. 내 힘으로 이룬 줄 알았던 성공과 관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쓴 맛을 보면서 비로소 혼자 남은 아버지가 내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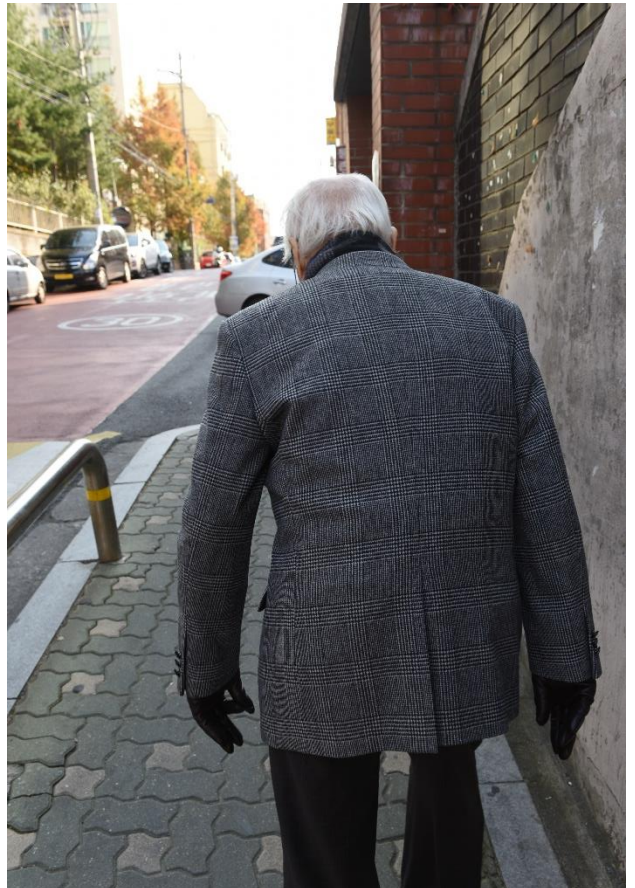
매주 주말에 아버지를 뵈러 갔다. 몇 달을 별 대화 없이 식사만 하고 오가던 중 마침 마음 달래려 시작한 다큐멘터리 사진수업 과제로 아버지를 찍기로 했다. 처음엔 “너 뭐하냐?”고 언짢아 하던 아버지도 점차 개의치 않다가 슬쩍슬쩍 포즈를 취해주시기에 이르렀다. 다양한 사진을 과제물로 제출해야 하다 보니 평소 같으면 무심히 지나쳤을 세수하고 면도하는 모습, 소파에서 조는 모습, 공공 앓는 모습, 동네 산책길, 교회 예배 등 하루의 일상을 따라 다니며 관찰하고 찍었다. 자연스레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심지어 자는 모습을 찍으려고 처음으로 함께 자기까지), 이 양반이 하루 일상을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일상에서 더 찍을 게 없어지자 범위를 넓혀 아버지와 잘 어울릴 만한 장소, 가고 싶은 곳을 물어 함께 갔다. 대한적십자사, 전쟁기념관, 어머니와 함께 걷던 공원 등 여러 곳이 있지만 특히 좌절한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도했던 목사님 댁 방문은 기억에 남는다. 은퇴 후 와병 중이셨던 목사님 손을 꼭 잡고 환한 웃음을 지었는데 이게 이 세상에서 두 분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렇게 찍다 보니 어릴 때 하도 들어서 짜증났던 아버지 얘기가 문득 궁금해져 촬영 도중 간간이 카메라를 놓고 아버지에게 묻고 기록했다. 젊은 시절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첫사랑은 누구였는지, 어떤 친구가 있었는지,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 예편 후엔 어떤 시도들을 했으며 실패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안타깝게도 이미 아버지는 급속히 기억을 잃어서 대화가 제대로 이어질 수 없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 그도 나와 같이 젊은 시절이 있었고 무언가 애써보았으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도저도 다 안되어 좌절했다는 사실 등등 아버지가 아니라 한 인간이 내게 들어올 즈음 아버지는 홀연히 세상을 떠나셨다.

‘카메라는 내가 주변의 모든 것들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한다. 우리 두 사람은 어색한 ‘말’이 아니라 카메라와 사진을 통해 이야기하였다. 다행히 돌아가시기 전에 이해와 용서를 구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꼭 껴안아 드릴 수도 있었다. 그 느낌과 행복, 충만함은 지금 사진이 되어 내게 남아있다. ✨

김상현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회장



효도하는 법



두 아들은 아버님의 임종을 지켰다. 하지만 브라질에 거주하는 딸은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할 수가 없었다. 두 아들은 최선을 다해 아버님을 배웅해 드렸다. 근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체로 가족끼리 조용히 치르는 경우가 많지만 사람 좋아하시던 부모님을 위해 큰 빈소에서 시끌벅적하게 장례를 치르길 원했다. 많은 분들에게 부고를 전했고 오시는 손님들이 적당한 거리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큰 분향소를 빌렸다.

불교신자였던 어머니는 아버님의 극락왕생을 위해 낙산사에 신위를 의탁하길 원하셨다.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발인하여 충주화장장에서 화장하고 제천 선영에 있는 납골묘에 유해를 봉안한 후 다시 낙산사로 이동해 신위를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야 하는 복잡한 동선이었다. 전체 동선을 장의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유족들은 화장장까지만 장의차량으로 이동하고 화장 이후에는 본인들의 차량으로 이동하려 계획했다. 나는 강하게 만류했다.

“아버님께 효를 다하고자 하고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러다 사고라도 당하시면 큰 불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긴 삼일장을 치르고 자가용으로 그렇게 운행하는 것은 졸음운전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었다. 유족들은 내 제안을 받아들였고 당일에는 선영에 모신 후 장의차량으로 서울로 돌아오기로 하였고, 적당한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낙산사에 신위를 모시기로 했다.

유족들은 홀로되신 어머님 상심이 커지진 않을까, 혹여 예법에 그르치지 않을까 끊임없이 질문에 질문을 더 했다. 첫째 아들은 공영방송 임원이었고, 둘째 아들은 모 회사의 대표였다. 자부님도 주요 신문사의 임원이었다. 유족들이 내게 하는 질문은 항상 공손했고 정중했다. 무엇이든 먼저 내게 물어보고, 모두 모여 의논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허락을 받았다.

고별과 입관의 시간. 각각 아버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다. 바다 건너 먼 곳의 딸은 음성메시지로 아버님께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새로운 장례모습 중 하나인 것이다. 녹음된 딸은 목소리는 한참 동안 “아빠 사랑해, 고마워”를 반복하고 있었고, 작은 며느리는 딸의 음성이 끝날 때까지 한참 동안 아버님의 귀에 휴대폰을 받쳐 들었다.

충북 제천의 선영. 가족납골묘에 아버님의 유해를 봉안한 후 술 한잔 부어드린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애들 걱정일랑 그만하셔~. 다 잊고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셔~!”

어머님 말씀에 유족들은 웃었다.

“엄마! 아빠 집 근처에서 서성거리시면 어쩔려고 오지 마래요~”

죽어서도 자식 걱정인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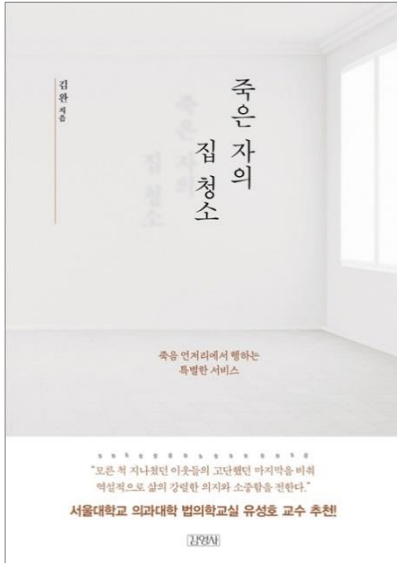
나는 아버님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딸을 대신해 카네이션 꽃다발을 만들어 올려 드렸다.

‘아빠 사랑합니다’

-딸 000 드림

김윤식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장례지도사





죽은 자의 집 청소

김완 | 김영사

특수청소부로 온갖 현장을 다니는 김완 작가의 시선을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고독사의 현실, 고독사의 민낯을 마주하게 된다. 노인뿐만 아니라 청년 그리고 청년에게까지 엄습하는 쓸쓸한 죽음. 세대와 성별을 가리지 않는 고독한 죽음 이야기를 하나 둘 접하다 보면 고정관념이 점점 깨진다. 생을 포기하기 직전까지 어떻게든 살아보려 삶의 절벽 끝에서 아등바등하던 흔적이 현장 곳곳에 남아 있다. 작가는 피와 오물, 생전 일상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유품을 치우며 삶에 대해 사색한다. 이 책은 ‘죽음’을 소재로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삶’을 이야기한다. 그래서인지 특수청소부의 현장 이야기가 마냥 무겁고 슬프지 않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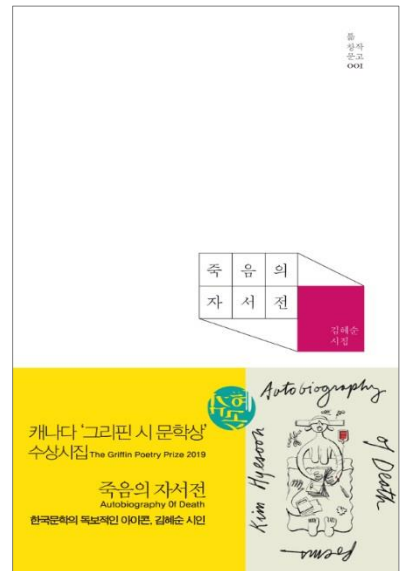
작가는 “누군가의 죽음을 돌아보고 의미를 되묻는 이 기록이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고 굳세게 만드는 기전이 되리라 믿는다”고 고백한다.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글로 기록하면서 잡다한 생각을 덜어내고 정리하는 마음속 청소를 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직업적 아이러니로 생기는 죄책감을 글로 씻어내고 위로도 받았다. 불길하고 음울하게 여겨 언급조차 꺼리게 되는 ‘죽음’을 마주하고 ‘삶’을 바라보며 그 과정에서 위로 받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출판사 제공 책 소개 중에서).

죽음의 자서전

김혜순 | 문학실험실

아직 죽지 않아서 부끄럽지 않냐고 매년 매달 저 무덤들에서 저 저갯거리에서 질문이 솟아오르는 나라에서, 이토록 억울한 죽음이 수많은 나라에서 시를 쓴다는 것은 죽음을 선취한 자의 목소리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 시를 쓰는 동안 무지무지 아팠다. 죽음이 정면에, 뒤통수에, 머릿속에 있었다. 림보에 사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가 갔다. 피악별 아래 지구의 여름살이 곤충들처럼 고통스러웠다. 고통만큼 고독한 것이 있을까. 죽음만큼 고독한 것이 있을까. 저 나 무는 나를 모른다. 저 돌은 나를 모른다. 저 사람은 나를 모른다. 너도 나를 모른다. 나도 나를 모른다. 나는 죽기 전에 죽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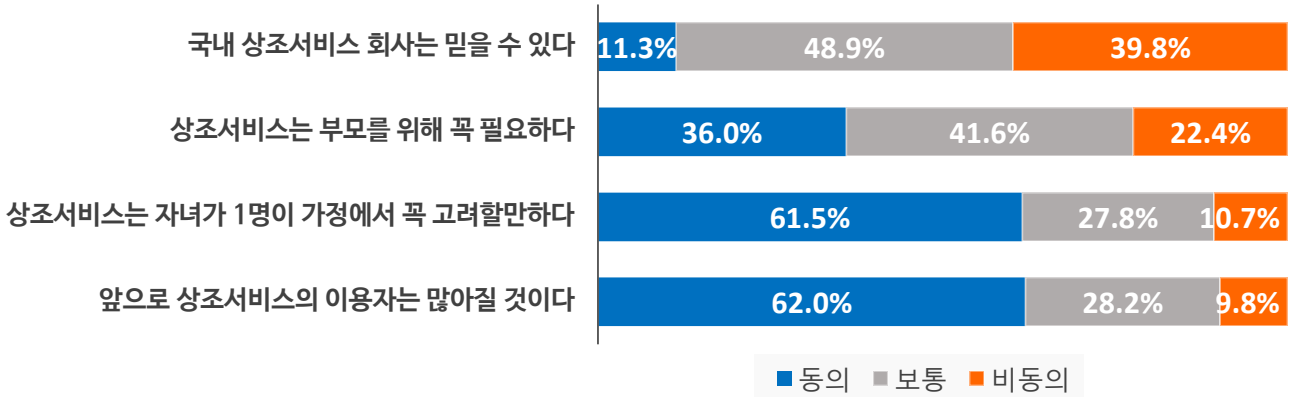
잠이 들지 않아도 죽음의 세계를 떠도는 몸이 느껴졌다. 전철에서 어지러워하다가 승강장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다. 그때 문득 떠올라 나를 내려다본 적이 있었다. 저 여자가 누군가. 가련한 여자. 고독한 여자. 그 경험 다음에 흐느적흐느적 죽음 다음의 시간들을 적었다. 시간 속에 흐느끼는 리듬들을 옮겨 적었다. 죽음 다음의 시간엔 그 누구도 이름이 없었다. 칠칠은 사십구라고 무심하게 외워지는 것처럼, 구구단을 외우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이 시를 쓰고 난 다음 아무것도 남지 않기를 바랐다(지은이의 말 중에서).



1 상조서비스에 대한 인식 평가 ‘국내 상조 서비스회사 믿을 수 있다’ 11.3%

- 상조서비스 신뢰성에 대한 긍정률은 11.3%로 매우 낮은 반면에 부정률은 39.8%로, 상조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게 나타남
- 응답자의 62%는 상조서비스의 이용자가 점차 많아질 것이라고 응답해, 신뢰도는 낮아도 아직 상조회사의 필요와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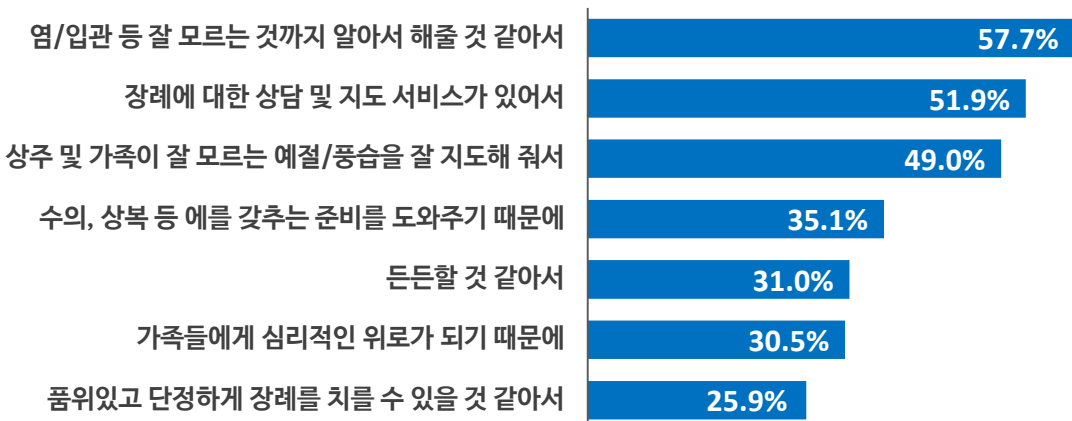
[그림] 상조서비스에 대한 인식 평가 (n=1000)



2 상조서비스 가입 의향 이유 ‘잘 모르는 것까지 알아서 해줄 것 같아서’ 57.7%

- 상조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유는 ‘잘 모르는 것까지 알아서 해줄 것 같아서’가 5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위로도 장례관련 안내와 지도에 관련된 응답으로 나타남
- 장례는 많이 접할 수 없는 행사이다 보니, 장례에 관련한 정보 부족이 결국 상조서비스의 필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임

[그림] 향후 상조서비스 가입 의향 이유 (1+2+3순위, 상조 서비스 가입 의향자, n=239)



*:자료출처 상조회사 인식조사. (마이크로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2014)

[연합회] 문화공간 채비 공사완료



안녕하세요 조합원님!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서울시 종로구 사무실에서 서울시 중구 충무로로 이사했습니다. 정든 곳을 떠나 중구에 온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공간이 낯설고 어색할 때가 많습니다. 사무실의 전등 위치와 달라진 번호키를 누를 때마다 기억은 오래 내 몸에 익힌 습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변화는 역동적인 사람에게 일상이지만 정적인 사람에게는 도전입니다. 오래 종로구에 사무실을 두었던 우리 조합이 이곳에 온 것은 도전이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기 위함입니다.

그간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 조합이 개선해나가고자 하는 장례식 모습과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장례식 풍경에는 얼마간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장에서 일하는 장례지도사에게는 늘 넘기 힘든 장벽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방향에 반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조합원과 고충을 나눌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때로 장례식장의 요구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버거웠습니다.

우리의 질문

그런 시간을 겪으며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좀 더 의미 있게 이별식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할까? 오래 고인을 기리는 방법을 함께 준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 보내는 마음이, 온전하게 슬픔을 느끼도록 할 수는 없을까. 우리는 너무 이별을 위한 시간에 야박했던 것은 아닐까.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장례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 조합의 지속성과 나아갈 바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갖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생각이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지난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조합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했다면, 이제는 조합원 개개인이 원하는 장례식 풍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추모공간, 문화 공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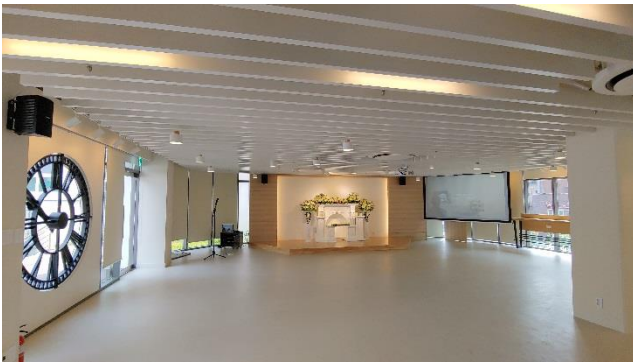
그것은 바로 우리 조합만의 특성을 지닌 추모공간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추모와 애도, 위로가 있는 우리 조합만의 혁신적인 장례서비스인 채비 장례와 추모식을 치릅니다. 고인을 기리는 영상을 보며 가족의 이별 편지를 낭독합니다. 애도의 시간을 갖고 떠나는 이를 기리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장례식장에서 빠르게 치러지는 장례식과 달리 추모하는 시간을 오래 갖고 고인과의 특별한 이별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모임은 물론 조합에서 마련하는 채비강좌와 인문학 강좌, 조합원의 개인 모임을 위한 공간 대여도 이루어집니다.

사회적 가치 선도

우리 조합은 이제 새로운 도약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곧 대한민국 최초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추모형 장례식장을 엽니다. 이는 조합원의 힘으로 일궈낸 것이며 조합은 물론 우리 사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곳에서 고인과의 이별을 의미있게 만드는 추모식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의 존재 이유를 더 분명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곧 오픈식을 통해 조합원과 뵙기를 기대합니다.

(공간 채비: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상가 201호)



[충남조합] 천안시 민관합동 워크숍 공모사업 선정



충남 한두레협동조합이 지난해에 이어 제10회 천안시 민관합동워크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차 사업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공모사업 테마는 ‘녹색장례문화 프로젝트’로 주요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한 제도마련
-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장례문화 만들기(시범사업)
- 대시민 홍보를 통한 일회용품 줄이기 인식개선
- 민관 거버넌스 구축

[강원조합] “조합원 농장에 울무 심고 왔어요”



지난 5월 31일, 강원한두레 조합원들이 양양군 간곡리에서 울무농사를 짓고 있는 조합원집을 찾아 1천백3여평의 밭에 울무를 심는 농사일손돕기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일손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의 농사 일손돕기가 큰 힘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광고] 태양광 미니발전기 설치 상담·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태양광 미니발전기를 설치할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미니발전기는 매월 15~25%의 전기요금을 절약해 주며, 20년간 제품수명을 보장합니다. 안전테스트를 통과한 제품(한화 325W 모듈, LG인버터)만 사용하며, 간단한 시공(30분)으로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 모집대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원(서울·경기 소재)
- 서울시 지원 금액: 44만원(서울시 보조금 39만원 + 구청보조금 5만원)
- 자부담: 조합원 부담금 5만9천원(2020년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 방법: 솔라테라스 <https://www.solarterrace.net>
(2018, 2019년 연속 서울시 시공 1위, 전국 실적 1위 업체)
- 신청 및 문의: 1566-3221
- A/S: 설치 후 5년(양도와 이전 가능)



① 태양광발전기 설치 준비



② 모듈 조립



③ 인버터 연결



④ 발전기 베란다로 이동



⑤ 베란다에 튼튼하게 고정



⑥ 태양광발전기 설치 완료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

* 솔라테라스는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의 업무협약기관이며, 수익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장례지원사업에 후원합니다.

5월

이선재 조합원 모친상
진원섭 조합원 부친상
이형철 조합원 빙부상
이광중 조합원 부친상
황보연 조합원 시부상

홍성건 조합원 모친상
박흥섭 조합원 모친상
이종한 조합원 모친상
송재은 조합원 모친상
윤승일 조합원 부친상

이진형 조합원 부친상
유대환 조합원 빙모상
김영수 조합원 부친상
박종석 조합원 모친상

4월

인미숙 조합원 시모상
이기석 조합원 부친상
이주원 조합원 모친상
박문식 조합원 처남상
차한영 조합원 모친상

송영섭 조합원 빙모상
정구일 조합원 부친상
최영숙 조합원 시부상
김성재 조합원 모친상
진현경 조합원 누이상

정효은 조합원 모친상
전문성 조합원 모친상
최 병 조합원 부친상
권정은 조합원 시모상
김대훈 조합원 지인상

3월

우 석 조합원 모친상
이정석 조합원 부친상
신용조 조합원 부친상
안승섭 조합원 빙부상
백형기 조합원 빙모상
박은진 조합원 모친상

김민정 조합원 모친상
김정수 조합원 모친상
이현실 조합원 지인상
문혜정 조합원 시모상
이 병 조합원 아우상
이흥석 조합원 부친상

이창곤 조합원 모친상
김재수 조합원 모친상
조건웅 조합원 모친상
권운혁 조합원 모친상
정규호 조합원 모친상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